

동학농민혁명 스토리(웹툰, 웹소설) 공모전

응모분야	웹소설	접수번호	이 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작품제목	불꽃처럼 7화		
7. 변화			
<p>“아니, 너는?”</p> <p>“훈장님!”</p> <p>남자인 줄 알았던 그에게서 나온 여자의 목소리에 모인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게다가 장두에게 훈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니.</p> <p>그 외침 소리가 인혁은 귀에 익었다. 놀라 일어난 인혁은 홀리듯 사람들 쪽으로 향했다.</p> <p>“네가 어떻게 여기 있느냐?”</p> <p>전봉준이 보고 있는 사람은 업동이였다. 업동은 놀랍고도 반가움에 벌떡 일어섰다. 그 옆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주명도 어안이 병병한 채 두 사람을 쳐다봤다.</p> <p>“장두, 아시는 사람입니까?”</p> <p>전봉준은 정신을 차리고 접장에게 답했다.</p> <p>“풀어주게.”</p> <p>접장들이 업동과 주명을 풀어주었다.</p> <p>“고부에서 내가 글 가르친 아이일세.”</p> <p>전봉준의 말에 주명은 눈이 동그아졌다. ‘고부에서?’ 그러나 그런 것에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p> <p>“훈장님이 장두셨어요?”</p> <p>업동이 아직도 실감이 안나 얼떨떨해 있을 때, 사람들을 헤치고 인혁이 다가왔다. 그는 남장을 한 주명과 업동을 설마 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방금 나타난 사람이 인혁임을 알아챈 주명은 놀라움과 반가움에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가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인혁은 이게 꿈인가 싶은 표정으로 주명과 업동을 번갈아 보다가 현실임을 깨닫고 주명을 힘주어 안았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 쳐다보며 입만 병긋거렸다.</p> <p>“옴마. 이 양반 남색이었나?”</p> <p>어디선가 한 마디 들리자 여기저기서 수근대기 시작했다.</p> <p>“아니 부인도 있다면서 저게 무슨 것이야?”</p> <p>“게다가 둘이나?”</p> <p>“저 쪽은 여자잖아. 목소리 들으면 몰라?”</p> <p>사람들이 어떻게 보던 인혁과 주명은 떨어져 있던 십여 일이 십 년과 같았기에 그저 서로의 체온을 느끼는 것에 열중했다. 전봉준과 업동도 반가움에 손을 마주 잡았다. 붉은 황토벌에서 부부와 사제지간의 해후가 이루어진 날이었다.</p> <p>***</p> <p>주명은 각오를 단단히 하고 길을 나섰지만 막상 집을 떠나 세상에 나오자 겁이 났다. 집 담벼락을 나선 일이 별로 없던 그녀였기에 세상은 온통 신기하고 무섭기도 한 곳이었다. 업동이 그런 그녀를 보호해 주면서 두 사람은 남장을 하고 동학군의 뒤를 물어물어 따라 갔다. 업동은 주명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대담하고 용감했다. 여인들임을 알아챈 남자들이 수작을 부렸다가 업동에 의해 나가떨어진 적도 몇 번이나 있었다. 주명은 업동의 처음 보는 모습에 놀라면서도 자신이 한심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이런 자신이 동학군을 따라가서 집이나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방 안에서</p>			

인혁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기에 주명은 밤마다 가슴속에 품고 온 단도를 부여잡고 버텼다.

황토현 근방에 이르렀을 때 총소리가 나고 마을 사람들이 도망가는 걸 본 주명은 두려움에 손이 덜덜 떨렸다.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인혁이 걱정되어서였다. 무작정 소리가 나는 곳으로 뛰어간 두 사람은 길에 나뉘는 병사들의 시신과 맞닥뜨렸다. 총과 칼에 맞은 시신을 처음 보았을 때는 기절할 것 같아 주저앉았다. 피만 봐도 어지럽고 구토가 나올 듯 했다. 하지만 사랑의 힘은 그녀로 하여금 산골짜기를 헤매며 혹시 인혁이 쓰러져 있는지 시신을 뒤집어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인혁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주명은 천지신명과 세상만물에 감사했다.

그런데 막상 인혁과 만나자 주명은 다시 압전한 양반집 여인네로 돌아갔다. 할 줄 아는 게 전무한 그녀였기에 사람들 사이에서 쭈뼛거리기만 했다. 다친 사람들 상처만 봐도 마음이 아파 얼굴을 찌푸리고 눈물을 흘렸다.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찡찡 혀를 찼다.

“아씨, 이러려고 왔어요? 여기서 양반이라고 대접받고 싶어요?”

업동이 처음으로 그녀를 다그쳤다.

“동학군 아낙이 되려고 왔으면 동학군처럼 굴어야죠.”

말은 짐짓 심했으나 다른 사람들이 주명을 욕할까봐 지레 큰소리를 치는 것임을 주명은 알았다. 자기 때문에 인혁이 동학군 내에서 눈치를 볼까봐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주명은 태어나 처음으로 밥을 짓고 빨래를 했다. 실수투성이였지만 끈기있게 배워나갔다.

“아유 그 고운 손으로 뭘 일을 해요.”

“아니 누군 뭘 태어날 때부터 거북이 손이었나.”

양반이라는 이유로 눈총을 주는 사람도 있었고 기특해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너그러운 인품과 겸손함으로 점점 인정받아갔다. 업동이 옆에서 그녀를 구박하려는 사람들을 막아준 것도 큰 힘이 되었다. 인혁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힘든 생활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녀의 곁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소중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인혁 역시 주명과 다시 만난 후 쫓겨 날았다. 처음 인혁은 주명에게 돌아가도록 설득했지만 그녀의 고집은 상상 이상이였다. 항상 차분하고 순종적이던 그녀가 절대 인혁과 떨어질 수 없다며 차라리 죽겠다고 해서 놀랐다. 이를 알게 된 동지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막상 포기하고 나자 인혁은 주명과 같이 지내는 행복에 힘이 솟았다. 두 사람의 금실은 다른 이들의 질투를 부를 정도였다. 인혁은 뛰어난 용맹과 명석한 두뇌로 동학군에서 신임을 얻어갔다.

업동은 동학군에 들어와서 홀가분함을 느꼈다. 주명을 인혁에게 맡겼다는 느낌에서가 아니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신분의 벽이 동학군에서는 사라졌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업동은 동학이야말로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곳임을 알았다. 노비였어도 언제든 당당하고자 한 이유를 동학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다고 해서 주학과 인연이 맺어지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기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업동과 주명, 인혁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할 것이기에. 그녀는 인혁과 주명을 볼 때마다 마음 한 편에 허전함을 느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 업동은 남자들만큼이나 훈련에 열중하며 악착같은 근성을 보여주었다.

동학군은 정읍, 고창, 무장, 영광을 차례로 점령하면서 전주를 향해 진군해 갔다. 그 사이에 홍계훈이 이끄는 경군이 전주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학군 내부에서 경군에 대해 「이 군대는 우리 주상전하의 명을 받고 내려온 사람들이므로 영관들의 군대와 달라 결코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싸움을 벌이면 우리들은 역적의 죄를 모면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 나왔다. 경군과의 전투를 꺼리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전봉준은 함평에서 창의소 명의의 통문을 홍계훈 앞으로 보내 봉기 목적을 밝혔다. 그리고 8개 조항의 폐정개혁안을 홍계훈에게 전달하며 협상을 하려 했지만 나주 목사 민종렬이 홍계훈을 대신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답변을 전달해 왔다. 결국 동학군은 장성에 진을 세웠고 이틀 후에 홍계훈의 경군 역시 장성에 도착했다. 경군은 외국에서 수입해 온 포와 회전식

기관총, 소총 등의 신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기에 이것은 동학군에게 큰 위협이었다.

고민하던 전봉준에게 업동은 기발한 생각을 전달했다. 그녀는 닭을 키우는데 쓰던 대나무 통에 짚을 넣어서 불을 붙여 굴리자는 의견을 냈고 전봉준은 크게 기뻐하며 준비하게 했다. 그리고 전봉준과 지도부는 장성 황룡강의 지형과 지세를 완벽히 익히고 있었다. 동학군들은 삼봉의 정상에서 학 모양의 진을 치고 경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경군 보다 위쪽에 자리 잡은 동학군은 수없이 많은 장태에 불을 붙였을 뿐 아니라 창과 칼을 꽂아 밑으로 굴러 보냈다. 장태에 의해 총과 포가 차단되자 경군은 당황했다. 죽음을 각오한 동학군의 위세는 경군의 신무기를 제압했고 황토현에서와 마찬가지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

동학군은 큰 길을 택하지 않고 다소 험하지만 지름길인 독배재를 넘어 전주성의 코앞인 삼천에 도착해 전열을 정비했다. 전주성이 그들의 충천한 사기의 함성을 기다리고 있었다.

**

주학은 연신 술을 들이켰다. 맨 정신으로는 현실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었다. 오늘 주학을 찾아 주막으로 온 사내는 주학의 학문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고 했다. 그런데.

“거벽일 하지 않겠소?”

“거벽이요?”

“이번 과거에서 민영준 대감 조카분 이름으로 시험을 치러주면 오백냥을 드리겠소.”

“지금 나한테 대리시험 얘기를 하는 게요?”

“어차피 과거에서 급제를 해도 출세는 힘든 세상 아니요. 요직은 다 세도가에서 차지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그는 시험장 좋은 자리를 맡아주는 선접꾼들도 이미 다 매수당해 있다고 말했다. 주학처럼 가난한 양반이나 서얼들이 거벽으로 돈을 번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은 있어도 자신이 직접 그런 제안을 받고 나니 주학은 망연자실했다. 사내가 돌아간 후 주학은 술로 모든 걸 잊으려 했다. 하지만 마셔도 마셔도 취하지 않았다. 상처 난 자존심으로 미친 듯 방 안을 헤집으며 발버둥을 쳐도 미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다. 희망은 꺾였다. 마침내 주학은 좌절감에 책을 모두 찢어버리며 오열했다. 그리고 지쳐 잠이 들었다.

새벽녘 어스름한 달빛 속에 웅크리고 있던 주학이 몸을 일으켰다. 허공을 바라보는 핏발 선 그의 두 눈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

장작불이 사그라들 것 같아 인혁은 나뭇가지를 불 속에 던져 넣었다. 곁에 잠든 주명의 얼굴에 따스한 온기가 닿기를 바라면서. 숙소를 마다하고 주명은 보초를 서는 인혁과 함께 있고자 했다. 인혁은 며칠 새 거칠어진 아내의 손이 가슴 아팠다. 그러나 변한 것은 손뿐만이 아니었다. 주명은 이제 다른 아낙들과 웃으며 농담도 주고받을 만큼 친해졌다. 전투에서 다친 병사들의 피를 닦아주고 상처를 뜨겁게 달군 수저로 지혈할 정도로 마음이 강해졌다. 짧은 시간 내에 이뤄진 그녀의 변화는 업동도 놀랄 정도였다. 이제 더 이상 아씨는 없었다. 주명 역시 인혁이 그랬던 것처럼 몰랐던 민중들의 삶을 듣고 지켜보며 안락함만을 지키려 했던 스스로를 자책했다. 그리고 인혁에게 배운 동학사상에 감명하며 그들이 바꾸려는 세상을 지지하게 되었다. 인혁은 그런 아내가 고맙고 더욱 사랑스러웠다. 지난 밤 주명은 업동을 노비에서 풀어주겠다고 했다.

“훨씬 전에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동무처럼 지내왔잖소. 혼인 때 데리고 올 정도로 많이 믿고 의지했고요..”

“그건.. 사실은 오라버니 때문이었어요.”

“형님?”

“언젠가부터 오라버니께서 업동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저는 모른 척 했지요. 부모님께서 아시면 업동이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봉서마을에 꼭 데리고 와야 했어요.”

“업동이 마음은요?”

“오라버니와 같은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저희 집에서 둘이 땀어질 순 없지 않겠어요. 소실이라면
모를까. 그런데 저는 엽동이가 소실이 되는 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해요. 오라버니라해도요. 그러기엔
엽동인 저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어요.”

“나는 책에서 보고 안 것을 부인은 날 때부터 갖고 있었구려. 다른 이를 귀하게 여기는 생각을.”

“엽동인 여기서 큰 사람이 될 거예요.”

손을 쓰다듬는 인혁의 손길에 주명이 눈을 떴다.

“좀 더 쉬시오.”

그러나 주명은 이내 일어났다.

“장두님은 팬찮으실까요?”

“팬찮으실 거요.”

“오늘은 전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장두님께서 뭔가 생각이 있으시겠지요.”

동학군은 관군이 거의 없던 전주성에 무혈입성 했다. 장날 동학군들 수천 명이 장꾼들로 변장해 시장에 있다가 포와 총 공격이 시작되자 놀란 군중들과 함께 전주성으로 들어가 성문을 열었던 것이다. 하지만 다음날 홍계훈의 경군이 전주성의 동서남북을 포위했다. 동쪽의 기린봉과 오목대, 서쪽의 다가산과 황학대, 남쪽의 완산칠봉, 북쪽의 건지산에 천 오백여 명의 병력을 배치치한 것이다. 장성 황룡촌에서와 달리 경군은 오히려 전주성 보다 높은 곳에서 포를 쏘아댔기에 장태가 소용이 없었다. 몇 차례의 전투에서 패배한 동학군은 적지 않은 사상자를 냈고 급기야 오늘은 장두 전봉준도 머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한양에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로 무너질 우리가 아니잖소.”

“그래도 이제 곧 농번기라 생업 걱정인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주명이 말에 인혁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농민들에게 땅을 놀린다는 건 하늘에 죄짓는 거와 같으니까요.”

“그러니 더 힘을 내서 빨리 세상을 바꾸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인혁은 씩씩하게 웃으며 아내의 등을 토닥였다. 주명은 희망을 품은 남편의 가슴에 살며시 기댔다.

하지만 경군과 교전하고 있느라 동학군은 몰랐다. 조정에서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하고, 일본이 그것을 알고 조선으로 군대를 출발시켰을 줄은. 제 백성을 토벌하고자 외세의 힘을 빌릴 줄은 누구도 생각 못한 일이었다.